

K-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회원 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Channel A 9.26) >

◆ K-패스 카드 65만장 교통비 환급 못 받고 있었다

○ 8월말 기준 누적 K-패스 발급 282만건 중 회원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 65만건

□ K-패스는 이용자의 주소지 검증(거주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) 및 이용계층 확인 등이 필요해 K-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-패스 앱·홈페이지에서 K-패스 회원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K-패스 카드발급 건수와 K-패스 회원 수는 이용자 개인의 선택*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1인이 복수의 K-패스 카드를 발급(회원가입 시 1개의 카드만 등록 가능) 받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카드발급 하는 경우, K-패스 회원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(19세 미만 미성년자 등)의 카드발급 등

□ 국토교통부는 K-패스 앱·홈페이지 및 11개 카드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지속 안내 중이며, 앞으로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K-패스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원가입 시 **카드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주소지검증(주민등록번호 입력)** 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가능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 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 박주연 (044-201-5087) 주무관 이주형 (044-201-5084)